

## “인재확보·R&D로 LG웨이” 구본무의 꿈, 代이어 결실

故 구본무 LG회장 2주기

추모영상, ‘고객가치’ 실현 담겨  
가족끼리 조촐하게 추모식 진행

고(故) 구본무 LG 회장 2주기를 맞아 생전 그의 꿈이었던 ‘영속가능한 LG’가 구광모 회장 체제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주목받고 있다. 구 전 회장은 ‘인재·연구 개발·고객 가치’ 경영을 통해 그의 꿈을 실현하려 했다.

LG 그룹은 20일 구본무 회장 별세 2주기 행사를 사내 온라인 영상으로 같음하고 가족들만 모인 추모식을 진행했다.

LG 관계자는 “구본무 회장은 생전에 의전과 격식을 멀리했다. 2주기는 고인의 뜻을 기려 온라인으로 차분하고 간소하게 추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구 전 회장은 생전 “좋은 인재를 뽑으려면 유비가 삼고초려 하는 것과 같이 CEO가 직접 찾아가서라도 데려와야 합니다”라며 우수한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말로 그치지 않고 2012년에는 인재 확보를 위해 구 전 회장이 직접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가 젊은 예비 연구인력들을 만났다. 2015년에는 마곡 사이언스 파크에서 일할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LG 테크노 콘퍼런스’를 열고 국내 석박사 인재 300명과 그룹 비전을 나눴다.

40대의 구광모 회장은 지난해 11월 조직에 젊은 인재를 수혈, 혁신 DNA를 주입해 인재 경영의 발판을 닦았다. 최고경영자(CEO)와 사장급 인사를 50대로 배치하고 여성과 이공계를 중심으로 임원들을 대거 발탁했다.

구 회장은 외부인사 영입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LG 특유의 순혈주의에 균열을 냈다는 평가다. 2018년에 임원급 13명을 외부에서 영입했고, 지난해에도 이창엽 한국코카콜라 대표를 LG생활건강 법인장으로 영입하는 등 14명을 외부에서 수혈했다.

“연구개발(R&D)은 LG가 일등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힘의 원천



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입니다.”

구 전 회장에게 연구개발은 일등 기업 LG가 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영역이었다. 구 전 회장이 국내 외를 돌아다니며 인재 채용에 힘썼던 이유도 연구개발의 질적 성장에 있다. 구 전 부회장의 연구 개발에 대한 의지와 비전이 담긴 결정체가 2018년에 문을 연 연구 개발 복합 단지 LG 마곡 사이언스 파크다.

구광모 회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가 반등하는 시점을 대비해 연구개발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최근 매년 1조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고, 그중 30% 이상을 배터리 분야에 투자하는 등 30년 가까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두 회장 모두 인재 확보와 연구개발 중추는 고객이었다. 구 전 회장은 2014년 임원세미나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상품을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고객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합니다”라며 LG의 제품은 고객 가치에 중심을 뒀다고 말했다. 에어컨, 냉장고, 스마트폰, TV 등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성장한 기업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구 전 회장이었다. 구 광모 회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고객을 24번 언급하면서 “2020년을 고객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고객에 최우선임을 밝혔다. /김재용 기자, 박태홍수습기자 juk@

## 제네시스, 차량 데이터 오픈 플랫폼 공개

‘제네시스 디벨로퍼스’ 출시

운행·제원정보 등 API 형식 가용

제네시스가 20일 차량 데이터 오픈 플랫폼 ‘제네시스 디벨로퍼스’를 선보였다.

제네시스 디벨로퍼스는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으로부터 수집한 운행 및 제원정보, 주행거리, 운전습관 등의 데이터를 API 형식으로 가공해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모든 데이터 공유의 목적은 고객 가치 제공에 있으며,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커넥티드카 서비스 및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네시스 디벨로퍼스 홈페이지에 가입 후 데이터 사용처와 목적을 등록하면 승인을 거쳐 API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네시스 디벨로퍼스는 운영 초기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현대해상 ▲오일나우 ▲오원 ▲카텍스 등 제휴사 4곳의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 삼양그룹, ERP 재구축 추진

# 김윤 “기업 프로세스 새롭게 설계”

〈삼양그룹 회장〉

클라우드 기술·인공지능 활용  
데이터 기반 업무 혁신 선도  
2022년 신규 ERP 가동 목표

삼양그룹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고 일하는 방법을 변화하기 위해 ERP(기업자원 관리) 재구축에 들어간다.

삼양홀딩스는 ‘글로벌 원(One) ERP’ 구축을 위해 ‘삼양그룹 프로세스 혁신 프로젝트’에 착수하면서 20일 경기 판교 삼양디스커버리센터에서 킥오프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은 최소화하고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 임직원에게 공유됐다.

ERP는 구매·생산·영업·회계·관리 등 기업 경영 활동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관리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



김윤 삼양그룹 회장

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경영 시스템이다.

삼양그룹은 국내 기업 중 선도적으로 ERP를 도입해 2001년부터 사용했다. 최근 데이터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업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재구축하기로 했다. 새로 구축될 ERP는 국내외 사업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

고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효율을 높인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측 분석, 모바일 업무 환경 등을 도입해 데이터 기반의 업무 혁신을 선도한다. 삼양그룹은 국내 법인 시스템 구축, 해외 법인 시스템 연동 절차를 거쳐 2022년 신규 ERP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윤 회장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며 “기업의 프로세스·시스템·데이터 등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해야 미래 생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삼양그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8대 과제를 추진 중이다. ERP 재구축도 이 과제 중 하나다. 이외에도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각 업무별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티웨이, 최악 업황 속 최저 적자... 신속판단·선제대응

첫 확진자 발생후 국제선 공급 조절  
코로나 장기화에 국내선 공략 속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며 전 항공사가 적자를 낸 가운데 티웨이항공이 주목을 받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적 항공사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영업손실 2082억원으로 가장 많은 적자를 냈고, LCC(저비용항공사) 중에서는 제주항공이 대한항공(566억원)보다 큰 657억원의 손실로 그 뒤를 이었다. 다른 저비용항공사들도 ▲진에어 -313억원 ▲티웨이항공 -223억원 ▲이스타항공 -359억원 ▲에어부산 -385억원으로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분기 7개 국적 항공사(에어서울, 플라잉윈 제외) 도합 적자만 568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상 최악의 업황 속에서도 티웨이항공이 223억원이라는 최저 적자를 내, 그 배경에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LCC업계 2위 자리를 두고 다툼을 벌이던 진에어를 비롯해 규모가 더 작은 에어부산, 이스타항공보다도 더 작은 손실을



티웨이항공 항공기.

/티웨이항공

냈기 때문.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에도 선제적 대응과 전략 등으로 흑자를 내지는 못했지만 ‘덜 까먹는’ 식의 선방을 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항공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적 LCC(국내·국제선 도합) 가운데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각각 16.3%(875만4190명), 14.9%(799만9611명)의 시장점유율로 2,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티웨이항공이 코로나19의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속한 판단과 선제적 대응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1월 말 국내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재빠르게 국제선 공급량을 줄였다. 지난 2월 인천-마카오 노선을 시작으로 대구-타오위안·방콕, 인천-치앙마이·하노

이·다낭 등 전 국제선을 잠정 중단 조치했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은 저비용항공사 빅3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률 하락 폭이 가장 작은 -38.1%, -30.4%을 기록했다.

아울러 티웨이항공은 최근 운항할 수 없는 국제선을 대신해 수요가 늘고 있는 국내선 시장을 공략하기에 나섰다.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25일 청주-제주 부정기 노선에 취항했고, 이달 1일에는 김포-부산 부정기 노선 운항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여행 수요로 대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분기에도 경영실적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수지 기자

## 현대제철, 날씨 빅데이터 사전예측... 철강제품 품질 ↑

날씨 빅데이터 콘텐츠 공동주관  
철강제품 품질관리 아이디어 모집

현대제철이 날씨 빅데이터를 활용해 철강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현대제철은 기상청이 개최하는 ‘2020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를 공동 주관하며 철강제품 품질관리에 대한 아

이디어를 모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이번 콘테스트에서 ‘공장 내 철강 제품의 결로(結露) 발생 예측 모형 개발’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날씨 변화가 공장 내부에 보관중인 철강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측 및 활용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

는다는 계획이다.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는 기상기후 빅데이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민간의 빅데이터와 융합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기상청에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대회이다.

/양성운 기자